

시민 중심의 섬김 시정 구현으로 행복한 안심도시 건설



구 본 영 | 천안시장

1962년 충남 천안 출생
1984년 서울시립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1989년 국무총리조정실 행정사무관
1999년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
2004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2008년 천안시장발전연구원 이사장
2014년 민선 6기 천안시장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61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와 달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맞춰 떠들썩한 선거전 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후보자 간의 발전된 의견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시민 중심의 섬김 시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동시에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민선 6기 동안 시정 철학으로 삼아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모두 바치겠다.

▲ 현재 천안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천안시와 시민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1 공약이라고 강조하였다. 저는 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어려운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저는 어려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눔과 소통을 원칙으로 열린 시장을 펼쳐 나가겠다.

그 동안 천안시는 시민 행복보다는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인구증가 및 도시의 양적 팽창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천안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성장은 무의미하다. 이제 모든 시정 역량은 시민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성장과 함께 행복의 시대로 천안을 이끌어 나아가겠다.

천안은 지금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우리 천안이 영광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시민 여러분과 제가 혼신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천안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소속 시·도의원님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진정으로 통합하고 협력하며 화합하는 새로운 정치 행정을 보여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치논리에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장과 공직자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며 재정이 가장 튼튼한 천안, 예산이 가장 탄탄하게 집행되는 천안, 공무원들이 자부심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천안, 새로운 천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민선 6기 역점 사업 및 주요 공약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학생들에게 너무도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선진국 진입을 논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처 능력이 이렇게까지 후진적일 수 있는지를 수십번 되물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고 제가 가진 경험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복한 안심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 것이 시대의 사명이요 민선 6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특화발전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330여개 기업이 위치한 서북지역을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집중 발전시키겠다.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720억 원(국비 900억, 지방비 385억, 기타

● 특집2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6,435억) 규모로 천안~아산~내포신도시를 잇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산업지대를 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천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과학벨트 SB플라자가 2015년부터 건립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다져진 천안의 산업기반을 기초로 해서 과학벨트 SB플라자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도시첨단 산업단지', '충남테크노파크'를 잇는 과학벨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향후 100만을 준비하는 천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

13억 중국을 겨냥한 농산물 및 농식품 전문 수출산업단지 조성,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명동 일대를 천안 문화예술 부흥의 중심이자 전국 명소로 성장시키는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고 이를 위해 명동 예술촌 조성사업,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4개년 프로젝트, 원도심 재생지원센터 운영, 원도심 활성화 기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500세대 신규건설, 전세임대주택 500세대, 신혼부부 300세대, 독거노인 200세대 등 총 2,500세대의 서민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

이와 함께 100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학교, 마이스터고 설립과 함께 기업특화 인재교육 활성화, 신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과 난개발에 따른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닌 문화예술 중심의 재생을 추진하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6기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복한 안심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세월호 침몰 과정에 드러난 재난대응체계의 미숙함을 전 국민이 보고 또 가슴 아파했다. 도시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경쟁우위를 위해 인구를 늘리고 공장을 짓는 등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성장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시의 주요시설물과 안전 우려지역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더불어 재난안전 매뉴얼을 현장중심으로 보완하겠다. 또 재난대응 콘트론타워를 일원화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천안시 종합안전망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심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다가올 2020년, 천안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천안시와 시민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천안시는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열린 행정 기초가 자리 잡고, 시민은 천안시의

정책을 믿고 신뢰하여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함께 성장해 있을 것이다.

천안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무자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공부 잘해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해서 키워주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서민 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을 통해 입주 대기연수가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주거복지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신혼부부와 독거노인들께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문화예술 중심의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으로 명동예술촌, 천안역세권 활성화, 작은 공연장 확대,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의 효과를 통해서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 또한 월등하게 향상되어 있을 것이다.

서북지역은 총 사업비 7,72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며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통한 IT, BT 등 특화된 산업단지와 함께 과학벨트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천안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인건비 손실이 없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향상과 정주여건이 편리한 도시기반, 융복합 산업단지의 안정적 조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되어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장이 되고 싶다. 땀물이 많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계약을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시민께 공개하겠다.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께서 소중한 힘을 모아주셨다. 시민의 이러한 기대에 이제는 구본영이 부응할 차례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임기 동안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시민들의 선택에 대하여 보답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